

# 생태·역사 담은 특화거리 조성... '하화담길' 본격화

도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공모 선정 10억 투입... 나주천 천변 거리 구축 지역 특성 반영한 쾌적한 보행 공간 승강장 등 공공 편의·휴게 시설 개선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읍성 일대를 중심으로 유구한 역사문화유산과 생태경관을 연계한 '천변 특화거리' 를 조성해 관

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도 주관 '2025년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5억원을 확보했다.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연자원을 반영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보행 친화 거리, 특색 있는 공공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기 추진 중인 나주읍성 복원, 나주천 생태물길 복원, 국가 유산 경관 개선사업 등과 연계해 역사·문화·생태·생활이 어우러지는 통합형 경관 특화거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시대 객사·지방 공궐 기능을 했던 금성관, 전국 최대 규모 향교 중 하나인 나주향교, 나주목사내야 등 주요 문화유산과 나주천의 자연환경을 연계한 '나주읍

성 따라 피어나는 하화담길' 테마 거리로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총 10억원을 투입해 특화 워터, 능소화 터널, 돌담, 경관조명 설치와 함께 보행로 정비, 간판 개선, 가로등·벤치·승강장·안내표지판 등 공공 편의시설 전면 개편이 포함된다.

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및 실시

계를 거쳐 오는 11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천 생태물길, 나주읍성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역사적 고 유성과 상징성,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천변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해 걷고 싶은 나주를 완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500만 관광객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 영산강 정원서 '전국노래자랑' 공개 녹화

내일 오후2시... 트로트 무대도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영산강정원에서 전국노래자랑 '나주편' 공개 녹화가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당일 무대에는 치열한 예선 관문을 뚫고 본선에 오른 시민 15명이 다양한 장르 노래와 춤, 끼를 유감없이 발산할 예정이다. 열띤 경연과 더불어 김성환, 박서진, 김소연, 차효린 등 초대 가수들의 흥겨운 트로트 무대도 펼쳐진다.

시는 이날 미니(MINI)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가꾸가는 영산강 정원을 소개하고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정원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노래자랑이 열리는 영산강 정원(나주시 영산동 757-1 일원)은 민선 8기 나주시가 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

세운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조성 중이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을 기치로 자발적인 수목, 벤치, 정원 자재 기부를 이끌어내며 현재까지 10만평 규모 정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5월 들어 영산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0만㎡에 달하는 정원 부지에 5개 이상의 주제 정원을 기획하고 정원과 연계한 수상레저시설인 웨이크파크, 대형 키즈 놀이터 등 즐길거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아름다운 나주 영산강과 영산강 정원, 나주배를 비롯한 명품 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겠다"며 "자연과 문화, 사람이 어우러진 영산강 정원에서 일상 속 재미와 휴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소방 직원들이 지난 15일 관내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하고 있다.

나주소방서 제공

## 나주소방, 화재 취약 일반주택 대상 화재예방 점검

## 빛가람호수공원 소규모 야외공연장 문 열어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 나주시는 빛가람호수공원 내에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19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공연장은 기존에 활용이 저조한 유희 수변데크를 정비해 약 232㎡ 규모의 공연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이 공연장은 버스킹 등 거리공연 전용 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연장은 빛가람동 로데오거리 맞은편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간이 무대와 조명 시

설, 관람석 등을 갖추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나주시는 이번 조성을 통해 기존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만으로 운영되어 왔던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시민과 청소년, 각종 동아리 모임 등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소규모 야외 공연장 운영과 더불어, 기존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 및 빛가람호수공원, 배메산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문화 수요 충족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 최난영 작가 초청 '한 책 특 콘서트' 성황

작가와 대화·미니 씨인회 등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4일 동신대 한방병원 대강당(빛가람동)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일반문학분야)된 '카페 네버랜드' 최난영 작가를 초청해 '관계 속에서 찾는 나의 네버랜드'를 주제로 '한 책 특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난영 작가의 강연과 작가와의 대화(질의응답), 미니 씨인회 등으로 진행됐다.

강연을 하는 동안 작가와 깜찍퀴즈 등 이벤트를 통해 여러 궁금증과 사연, 마음 속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카페 네버랜드' 한 책 특 콘서트는 지

역민들의 독서 및 문화 진흥을 위해 나주시, 동신대학술정보문화원, 전남교육청 나주도서관, 남평도서관이 뜻을 모아 진행한 지역도서관 공동 개최 행사이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2025년 나주시 올해의 책에 어린이부문 '행운이 구르는 속도', 청소년부문 '달리는 강하다', 일반 문학부문 '카페 네버랜드', 일반 비문학부문 '내면소통'을 선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이 좋은 책을 함께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도서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께서 문학적 소양을 높여 나가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신규감지기 배부 설치 지원 등

전라남도 나주소방서가 지난 15일 '2025년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화재에 취약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민간전문가(건축·전기)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총 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관내 일반주택 4개소를 방문해 진행됐다.

비닐하우스 내 거주지, 화목난로 사용 주택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나주소방서는 주택 내 설치된 화재감지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미설치되었거나 노후된 감지기에는 신규감지기를 배부하고 설치를 지원했다.

가정용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고 비치기 필요한 세대에는 직접 소화기를 전달해 초기 화재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주민들에게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항식 나주소방서장은 "비닐하우스나 화목난로 사용 주택은 화재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남평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 전면 개통

교통량 증가 통행불편 해소

전라남도 나주시는 남평읍 강변도시아파트를 비롯한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남평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마치고 전면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통한 강변도로는 남평 한우촌에서 남

평양우내안에 2차아파트 구간에 이르는 1.2km(폭 12m)구간으로 총공사비 13억 2000만원을 투입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강변도로 확·포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준공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이 큰 지역이었다.

시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 당초 6월 말로 예정된 준공 시기를 한 달여 앞당겨 완료하고 조기 개통했다.

도로 확·포장을 비롯해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원활한 차량 통행과 시민 안전성을 확보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평 강변도로 확·포장과 조기 개통을 통해 주민 편의와 통행 안전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전체 공직자 친절 적극행정 교육

시민 눈높이 맞춤 소통 실현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1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분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친절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시행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시

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행정 실현과 일선 민원 현장에서의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강사로 초청한 양지현 사람숲건설링 대표는 '공직자 태도 중요성과 민원인의 감정 이해', '공손한 의사소통 기술', '적극 행정을 위한 사고 전환' 등을 강조했다.

단순한 응대 기술을 넘어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정중하지만 명확한 응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방법을 주문하며 사례 중심의 강연으로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나주시는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교육뿐 아니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